쿵짝 통신

쿵짝이 맞을 때 나오는 자매지

“서로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돌봐주는 이야기”



딸세포와 삼프레스는 무슨 사이인가

오지은(이하 오): 어언 6년 전에 서점에서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를 발견했어요. 사서 후루룩 다 읽었어요. 유혹적인 콘텐츠였거든요. 제목과 표지 ‘갬성’이 좋았고요. 미친 페미니스트 중의 한 사람으로서 ‘결이 맞다’고 느꼈거든요. 텀블벅 펀딩 페이지와 인터뷰를 읽으면서 마침 기획 중이던 저널「삼」 3호의 커버 스토리 필자로 섭외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바로 메일로 연락했죠. 말도 안 되는 원고료 조건에 흔쾌히 청탁을 수락해줘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재밌었고요. 이후로 쭉 같이 놀고 있네요. 여섯 살이나 젊었을 때의 일을 새삼 떠올리니 설렙니다만, 그땐 둘 다 얼굴 주름 걱정 따윈 없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김은화(이하 김): 암요. 그때 우리 동네 피잣집에서 맥주 마셨잖아요. 님이 나한테 착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요? ‘니 뭔데? 니 내 아나?’ 싶어서 속으로 떨떠름했습니다. (티 났으려나 모르겠네. 몰라?) 님이 계산해서 포커페이스 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첫 책을 편집하는 내내 다른 여성들의 존재를 상상했어요. 어딘가에 나처럼 이상하고 미친 여자가 있을 텐데, 그런 여자들이랑 책을 통해 이어지고 싶었거든요. 그게 바로 당신이었나 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여자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SNS에서 “나도 엄마가 먹여 살렸다”라는 후기를 꽤나 봤고, “나도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 남겨 보고 싶다”라고 남긴 독자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 반응하는 여성들, 엄마와 딸들은 결국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오: 신작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첫 책의 독자로서 엄마가 가장인 서사가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을까, 다소 불온한(?) 질문을 품었지만 이 또한 매우 즐거운 읽기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나와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읽고서 캐나다 작가 에드워드 버틴스키의 사진전 《추출/추상》에서 본 산호초 사진이 떠올랐어요. 한 번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산호초 여러 장의 이미지를 디지털로 이어 붙인 초대형 사진이거든요? 각각의 엄마 가장 서사를 이어 붙이면 또 하나의 다른 작품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에서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까지, 모녀 구술 작업의 의미

김: 꼭 딸이 하는 엄마 구술 작업이 아니어도 좋으니 여성의 업을 더 다채롭게 기록하고 싶어요. 『여사장의 탄생』『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는데, 여성이 담당한 일과 역할에 대해 파고드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걱정은 ‘이거 다 너무 마이너한 기획은 아닌가’ 하는 것!

오: 그게 왜 마이너한 기획입니까!

김: 흠... 둘 다 마이너리그 선수라 그런지 위치 파악이 잘 안 되는 듯해요. 거울이 거울 보고 질문해봐야...(먼 산)

오: 책 질문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순한 맛(?)이라는 생각이 든 어머니가 표지로 선정됐어요. 이유는?

김: 얼굴을 정면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엄마와 딸 모두 실명으로 나온 유일한 케이스였고요. 뭣보다 사진이 좋았어요. 디자이너가 “마치 30년 뒤 책 표지로 쓰일 걸 알고 미리 찍어 둔 사진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로서 말하는 화자일 수도, 딸로서 듣는 청자일 수도 있는 아리송한 눈빛의 20대 여성 얼굴이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제목하고 잘 맞아 떨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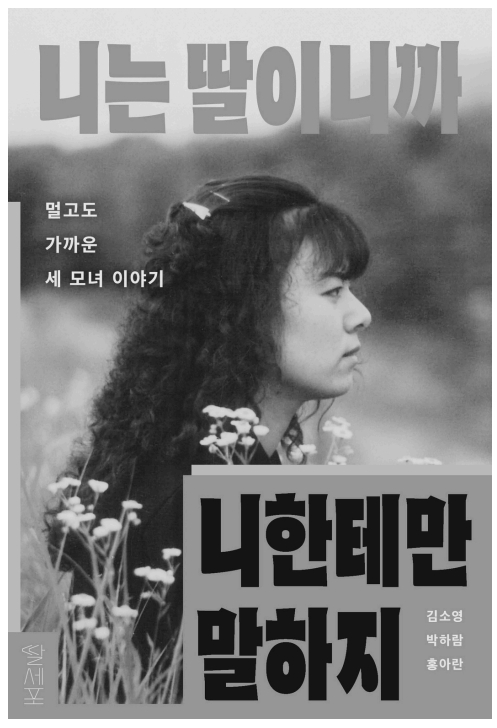
오: 인정입니다. 세 번째 장에 실린 ‘언니 인터뷰’가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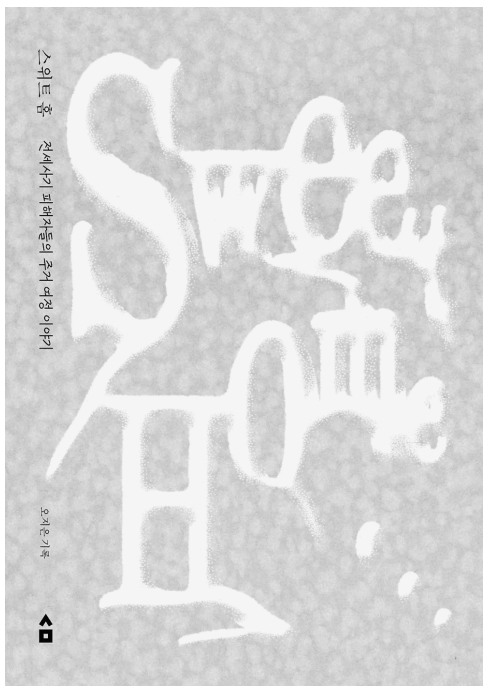
김: 저자요.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언니의 허락이 필수였는데, 정면돌파한 것이 전략적으로 먹혔어요. 이건 물론 편집자인 제 생각이고, 저자는 이번 기회에 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엄마 자신이 보는 엄마, 그리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말하는 엄마, 그 사이의 간극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떤 인물이든 한쪽 방향에서만 다루면 관계 사이에서 다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우니까요.

오: 엄마 이야기를 푸는 작업자이자 딸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엄마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김: 음… 구술 작업이 엄마와 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 건 확실해요. 박영선이라는 한 여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엄마의 상이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엄마도 내게 원했던 딸의 모습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박영선 씨가 가진 한계는, 그 시대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래도 역시 관계 속에서 느끼는, 처절한 절망감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도 가부장제 안에서 순응하고 타협하며 살아온 인물인데, 엄마는 그걸 인식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아들과 딸을 차별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엄마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 입장에서 보고 느낀 바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봤지만 엄마는 달라지는 것도 없고 서로 갈등만 심해지더라고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엄마는 그냥 그런 사람인데. 나는 포기하고 내 갈 길 가야죠. 그런데 그 길이 다른 딸들한테 이어지더라고요.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는 결국 딸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조난 신호 같은 거예요. 너도 그 섬에 있었니? 나도 이 섬에 있었는데!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또 돌봐주는 이야기인 거죠.





“집에 관한 가장 슬프고 현실적인 이야기” 『스위트 홈』

김: 님은 전세사기를 당한 적은 없잖아요. 그 피해자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건 어떤 맥락일까, 궁금했어요.

오: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전국위원장 영향이 컸어요. 지인이거든요. 우연히 주간지에서 이분 인터뷰를 보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았고요.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게 전세사기 사건과 나와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됐어요. 사건을 들여다보니 나는 그냥 운 좋게 전세사기를 피해 간 사람 중 한 명이더라고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던 두 번의 시기, 2019년과 2022년에 저도 전셋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2019년에는 계약했더라면 백 퍼센트 사기당했을, 신축 빌라 매물을 종일 본 날도 있고요. 전세사기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이 일을 해결하는 데 뭐라도 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들었는데,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록과 출판이었어요. 출판사 등록은 해놓은 상태고, 첫 출판에 관한 고민을 느슨하게 하던 시기였고요. ‘스위트 홈’을 바로 기획해서 이철빈 씨에게 공유했어요. 인터뷰이 섭외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죠. 덕분에 바로 사람들을 접촉해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김: 에피소드들을 읽다 보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는 마음이 절로 들어요. 박현수 씨 주거 여정은 특히 기억에 남고요. 10년 내내 일조권을 포기하며 혈혈단신으로 마련한 전셋집 보증금을 떼였을 때는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단지 ‘1억 원’을 사기당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인생 그 자체를 송두리째 뺏긴 거잖아요.

오: 너무 잘 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전달되길 바라면서 만들었거든요.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언론은 시의적절하게 ‘역대급 수치’를 보도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면의 진실은 늘 훨씬 큰 이야기들이고요.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얼룩덜룩’하기도 한. 저널리즘이 걸러 낸, 인생의 진짜 이야기들을 기록해놓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김: 전세사기 사건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주거 여정을 다뤄줘서 좋더라고요.

오: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디 멀리 있는 아무나가 아니라 내 친구, 내 이웃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분들 집에 얽힌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누구든 임차인으로 주거 여정을 시작하고, 삶이 서서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벽에 부딪히고요.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구성원들이 그 문제와 자신과의 연결점을 잘 인지할수록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인생은 나아지는구나”

김: 피해자들 근황은 어떤가요? 어떻게들 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오: 인터뷰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열심히 싸워서 올해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냈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생겼어요. 전세사기가 애초 차단되는 방향으로 임차제도가 비뀌어야 하는 부분이 숙제로 남았죠. 이철빈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거의 풀타임 활동가로 대책위 일을 하다가 몇 년 만에 휴식을 가지면서 요즘 다시 커리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안상미 공동위원장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으로 당선돼 일하고 있으시고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인생은 계속되는 거구나, 그분들 보고 배우고 있어요. 살다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만, 고칠 수 있는 걸 고치려고 애쓰는 삶이 결국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좋아지게 만들더라고요. 개인의 ‘노오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우선 단단해야겠죠!

김: 집과 주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룰 예정이라고 했죠?

오: 집 이야기로 물꼬를 튼 김에 다양한 형식으로 펴내고 싶어요. 전작과 신작이 함께 주목받을 수 있도록...? 최근 『스위트홈』 리뷰를 X에 공유해주신 출판사 마케터가 있었는데 그분의 리뷰가 제작자로서 참 와닿았어요. “집에 관한 가장 슬프고 현실적인 이야기” 제가 슬프고 화나는 사회적인 이슈에 끌리는 사람인가 봐요. 그럴 때 확실히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띄우고 싶은 이야기들을 있지만 늘 그렇듯 돈이 문제다….

1인 출판사의 흔들리는(?) 직업 정체성

김: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눌 때 “나는 작가 정체성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오: 첫 단행본 작업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출판 노동은 (계속 엎어져서 무로 돌아가는) 기획이기도 하고요. 어떤 책 만들지 설계하는 거! 그 외 옷 파는 임노동도 하고, 살림하는 시간도 많아요. ‘9 to 6’라는 한 가지 직업을 놓은 후로는 ‘나는 뭐다’라는 고정된 생각 자체가 없어요. 판매원이었다가 편집자였다가 작가였다가 사장이었다가 주부였다가. 본업이 출판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본업과 부업을 구분 짓는 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뭘 하든 돈 벌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확고해요. (생각대로 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일전에 은화 씨가 “책 팔아서 무슨 돈을 버냐”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책을 왜 파는 것인지를 그때 묻고 싶었습니다. (ㅋㅋ)

김: 재밌는 질문이네요? (ㅋㅋ) 드라마 〈모자무싸〉 에서 고박필름 대표 고혜진이 “누가 돈 벌려고 영화를 하냐, 놀려고 하지!”라고 한 말에 머리가 ‘댕~’ 울렸어요. 돈 벌려면 애초에 출판 말고 다른 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출판사에 취직했던 2013년에도 업계는 위기였거든요. 근데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도 참 기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로 먹고사는 거니까요. 돈이 아쉬울 때마다 ‘그때 회사를 계속 다녀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마 되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하겠지만요. 다행히 책 내면 다음 책 낼 정도는 팔리고 있습니다. 1인 출판으로 먹고살 정도로 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오: 그, 그러게요... 드라마 〈가을동화〉의 그 유명한 대사를 치고 싶네요. “돈... 필요해요.” 일... 계속하고 싶단 말이에요.

김: 별 수 있나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하필 마지막 문장이...‘거지’로 끝나다니!)

